



전주매일



오늘 도지사직 인수위 출범

전북 미래설계할 전문가 100여명 규모 구성
도민주권 등 5개 분과 3개 특위 체제로 운영
AI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호남-제주 상생 등
전북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특위 활동 주목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민선 9기 도정의 청사진을 마련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관련기사 3면>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북비디오 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판식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신형식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 도정 출범을 위한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념촬영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수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전북 발전 비전을 도민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범하는 인수위원회는 위원

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자문위원 등 10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5개 분과와 3개 특별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5개 분과는 △재생에너지·피지컬 AI 미래산업분과 △체감성장분과 △도민주권분과 △글로벌 K분과 △도민행복분과로 구성되며, 3개 특별위원회는 △5극 3축 호남·제주특위 △하계올림픽특위 △2020조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특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AI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과 하계올림픽 유치, 호남·제주 상생발전 전략 수립 등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현판식 이후 인수위원들은 전북 테크비즈니스센터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인수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며, 도지사 당선인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성공적인 도정 출범을 위한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북도 김철태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인수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민선 9기 도정의 핵심 정책과 공약 이행 방안,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7월 20일까지 활동하면서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점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의 성장동력 확보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굴해 새 도정의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민선 9기 전북도정의 정책 설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이 대통령, 전주 금융도시 집중 지원 의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지역균형발전 강조... 전북자치도, 환영 표명
전북에 4대 금융그룹·글로벌 22개 기관 집결... 자생적 생태계 가시화
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해 올 하반기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전주 금융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소외 지역 균형발전을 향한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며 "전주를 금융 중심도시라고 옛날에 말은 했는데 거의 안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전주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 작지만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균형을 맞춰 가려 한다"며 지원 방안을 공식화했다. 도는 이번 발언을 향후 남은 임기 4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연내 결정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 심사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평가단 용역사가 선정된 상태로, 오는 7~8월 현장실사를 거쳐 연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확고한 균



형발전 의지가 확인되면서, 전북의 지정 당위성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동력을 얻게 됐다. 실제로 전북 혁신도시에는 민간 금융 자본이 집결하며 '자생적 금융 생태계'의 내실을 단단히 다져가고 있다. 1,600조원 이상을 운용하는 세계 3대 연기금 국민연금공단(NPS)을 중심으로 KB금융그룹은 380여명 규모의 KB금융타운'을 조성 중이며, 신한금융그룹은 전북을 그룹 차원의 자산운용·자본시장 전략 허브로 선포했다. 여기에 우리금융그룹의 1조6,000억 원 규모 지역 밀착 자금 공급, 하나금융그룹의 '원-루프(One-Roof) 센터' 신설 등 국내 4대 금융그룹이 모두 전북에 자리를 잡고 자본시장 핵심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블랙록, 골드만삭스,

SSB, BNY, 프랭클린템플턴 등 세계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기관을 포함해 총 22곳이 이미 전주에 안착했거나 이전을 확정하며, 전북의 자산운용 특화 경쟁력을 시장에서 먼저 입증하고 있다. 전북은 서울(종합금융)과 부산(해양·패션금융)을 보완하는 '자본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특화 금융모형을 제시하며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전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1만1,700여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내총생산(GDP)이 최대 2조 원 늘어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대통령께서 전주 금융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혀 주신 것은 도민의 오랜 염원에 든든한 힘을 실어 주신 것"이라며 "전북은 이미 연기금과 민간 금융 인프라가 맞물려 놓여있는 준비된 최적지인 만큼, 올해 하반기 심사를 통해 제3 금융중심지로 조속히 지정돼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여성의 목소리 이어온 20년' 9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2층에서 '전북여성화요간담회 2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여성정책 발전과 여성 연대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은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포럼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2면>

오늘부터 19일까지 전북자치도의회 마지막 회기

임시회서 조례안·2026년도 제1회 추경 등 안건 심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0일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42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북사랑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동의안 등 접수된 의안 24건을 해당 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10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국립공원 보존에 따른 지역희생 보상 및 국가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의 의안 및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정·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함께 즐기는 나눔·소통의 장' | 2026 제1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 13일 개최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초여름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장터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2026 제1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민장터는 지역 공동체 간 소

통과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장터에서 '가족탐정단: 미스터리 마켓'을 주제로 노송광장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판매 장터와 체험장, 놀이, 공연 및 이벤트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판매 장터에서는 15개 부스가

참여해 핸드메이드 소품, 각종 문구류 등 다양한 수공예 굿즈와 구움과자, 솜사탕, 음료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간식을 선보인다. 또한 체험장에서는 총 10개 부스가 참여해 나만의 불면 만들기, 천연 아로마향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동체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부안군 BUAN-GUN

부안사랑 부안 지킴이

부안군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혜택과 담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금은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방법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담례품 기부금액의 30% 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은행 (http://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 기부금액 | 세액공제+담례품 |
|-------------|------------|
| 100,000원 | 130,000원 |
| 200,000원 | 204,000원 |
| 1,000,000원 | 576,000원 |
| 5,000,000원 | 2,436,000원 |
| 20,000,000원 | 9,411,000원 |

문의처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고향사랑협력팀
TEL: 063-580-4938~9

QR코드:

지금바로 기부하러가기

- 1 지정기부 아성별 불분기를 지급합니다
- 2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합니다
- 3 청년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